

전국양돈인대회에서 모범양돈농가상을 수상한 신 흥 축 산

취재 : 광삼섭 기자

돼지 한마리에서 전문 종돈장으로 성장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51-1번지의 높지 않은 한적한 야산 1만 3천여평에 돈사시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신흥축산(대표 : 장태환).

지난 1982년 군제대후 부친으로부터 암돼지 한마리를 물려받아 양돈업에 입문한지 7년만에 전문양돈농가로 성장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른 양돈장이 없는 이곳에 자리잡은 지는 불과 5개월전으로 그 전에는 고향 마을인 칠원면 용정리에서 양돈업을 했었다.

신흥축산은 건평 1천 5백여평에 현재 모돈 100두, 종돈(등록돈) 50두, 자돈 900두를 포함 총 1,000여두를 사육하는 전업양돈장으로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종돈사업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우수한 종돈확보와 체계적인 사 양관리에서 부터

신흥축산의 경영방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종돈확보 및 능력개량,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형에 맞는 교배체계, 산자수 8두 미만 도태, 종돈으로서 생시체중 1.1kg이하 자돈 도태를 포함해 환경 조건에 맞도록 돈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사양관리 측면에서 포유기 자돈의 발육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분 공급을 위해 인공유를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유중의 돼지가 조절기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혈구 구성에 의한 철분이 모유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분투여 목적은 물론 영양공급을 위해 향료나 항생물질 및 소화효소가 첨가되어 있는 대용유로 대신하고 있다. 또 육성돈·임신돈·수유돈·종모돈 등 모든 돈군의 사료급여는 자유급여방식을 취하고, 비육축진제·발육축진제·생균제·미네랄제·항생제 등의 사료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사양관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하루의 작업은 금일작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르는 관리점검표에 철저히 기록함으로써 개체관리의 세심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신흥축산 장태환씨

첫째, 육성기의 사료(에너지) 섭취량을 제한하면 발육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초회 발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료요구량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반면 증체가 너무 빠르거나 하면 체지방의 축적이 늘어나 번식기능이 저하되고, 과비방지를 위해 사료급여량을 제한, 사료의 일부를 풀사료로 대체하기도 한다.

둘째, 임신돈에 대하여는 모체의 유지, 태아의 발육과 자궁 및 태막의 발달 등에 요구되는 양분 공급을 고려, 임신전기에 사료급여량을 적게 하고 임신중기로부터 후기에 걸쳐 사료급여량을 늘여준과 아울러 분만예정일 2~3일전부터 서서히 줄여 분만당일에는 급여량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로 줄여 분만을 순조롭게 하고 있다.

셋째, 수유돈의 젖생산에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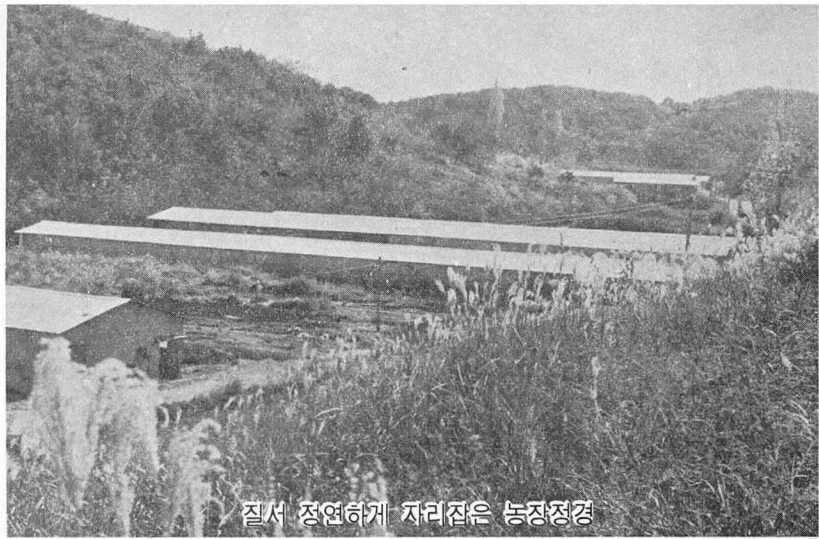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사양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분만후 5일경까지는 사료의 증사를 늦추고 있다. 후에 유량과 유성분의 변동을 고려하여 자돈이 요구되는 양분이 부족되지 않도록 사료공급을 늘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종모돈 사료의 다량급여는 과비와 함께 승가육이 감퇴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사료(에너지)의 과잉급여를 피하고 아미노산 첨가사료로서 단백질 영양분을 충분히게 하여 단백질로 소모되는 것을 충족, 종모돈으로서의 체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이유시기를 돼지의 발육과 모돈의 영양상태 및 다음의 종부계획에 따라 정하고, 생후 2~3주 체중 4kg정도면 조기이유시키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경영방법으로 종돈생산에 역점을 들 방침

경영합리화는 모든 양돈인의 관심이자 농장 최대의 경영목표이다. 경영합리화는 일정하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기술개선과 사양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흥축산은 자체농장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타농장의 경영성과와 자체농장의 경영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자리잡은 농장정경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신흥축산은 현재 산자수 9.5두에 출하두수 8.9두, 포유율 95%, 이유율 95%, 평균 이유기간 27일, 분만회전을 2.4회, 출하일령 140~150일의 번식성적으로 과히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씨가 종돈개량에 목표를 두고 자주 찾고 전화 문의하는 농장인 동해축산, 덕영종돈, 동아축산 등에 도움을 받았다면서 관계되는 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계속 연계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원칙은 양돈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합리화 즉 생산비 절감 및 판매수익증대가 수반되어야 종돈장으로서의 경영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판단하고, 최소의 이윤마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종간 또는 종돈개량에 우수한 경제형질을 만들어 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장씨를 대하면 옛날 서당에서 들려오는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세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스

무한한 연구 노력에서 맺은 결실

스로 운이 좋아 성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틈만 나면 책과 싸우며 공부하는 자세, 양돈잡지 및 전문서적 등으로 사양관리에서 질병관리까지 돼지에 쏟는 그의 정열 등이 지금의 신흥축산을 낳은 것이라고 업계 주위에서 말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본회 제6회 전국양돈인 대회에서 모범양돈농가상을 수상한 것도 본인의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맺은 결실이라고 주위사람들은 평하고, 집념어린 양돈의 꿈속에 자리한 그의 모습과 돼지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범양돈농가이기도 했다.

앞으로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품종관리 및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종돈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는 다짐속에 젊은 양돈인답게 양돈산업 발전은 물론 미래 양돈산업의 선봉주자로서, 그의 연구 노력하는 정열이 신흥축산의 그 자리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